

<제4차 아셈 노인인권 컨퍼런스>

주요내용 요약(3-4세션)

2019년 10월 1일(화) ~ 2일(수), 대한민국 서울

<세션 3> 4차 산업혁명과 노인인권

발표1. 디지털 시대 속 일과 기술의 변화 (산토 밀라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협력연구센터)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려]** 미래 직업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논의가 관련된 데이터 없이 진행되어왔으므로 데이터를 통한 시점의 전환이 필요함. 유럽 내 디지털 시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 증가하고 있음. 시민의 70% 이상이 로봇과 AI가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 우려함.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 자동화와 신기술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예견됨. 옥스퍼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일자리의 47%가 대체될 전망이며, 다른 연구결과도 비슷한 예상치를 제시함. 대체될 일자리 비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노르웨이는 6%, 슬로바키아는 36%일 것으로 예상됨. 특히, 반복적 업무를 하는 직업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숙련 직종의 경우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보임. 그 외 다음의 여러 변화가 예상됨: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유럽의 지난 7년치 통계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보임.
 -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채용환경에서 기술적 능력은 물론 문제해결, 소통, 기획, 협동 등 사회적 능력의 (소프트 스킬) 비중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디지털 격차에 따른 임금 격차]**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체 노동 인구의 40%가 디지털 기술이 없는 저숙련 노동자임. 디지털 격차는 임금의 격차로 직결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플랫폼 주요사용자]**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는 평균 나이 34세의 남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부양 가족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큼.
 - **[일자리 구조의 변화]** 유럽 내 혁신 리더 지역의 경우 새로운 인재와 기술 활용이 높게 나타나며 고임금 일자리가 더 많음. 농어촌-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내 국가 간에도 격차가 존재하며, 이탈리아 남부, 스페인 남부 등에서는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보고서 참고)

- **[4차 산업혁명과 노인이슈]** 정책입안자들은 자동화와 고령화라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음. 기술의 발전이 낳은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발표2. 노인의 후성유전학: 인권의 생물학적 결정 요인
(시모나 가우디, 이탈리아 국립 보건연구소)

- **[인간 게놈 프로젝트]** 분자 생물학자로서 기술과 과학이 질병은 물론 고령화에 대한 인식과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2001년 발표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따르면 20000개의 유전자만이 인간 조직을 만들어내는 데 관여하며, 인간 게놈의 98%는 단백질 유전자 코딩에 관여하지 않음. 이는, 인간의 운명이 유전자에 달려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임. 유전자의 발현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인간의 게놈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짐.
- **[후성유전학]** 인간의 운명이 게놈 외 세포 발현의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의미함. 게놈과 환경적 요인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고령화 관련 색다른 시각을 제공하며, 다학제적 노력이 필요함.
- **[SDG 목표 달성]**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환경적, 유전적 요인과 게놈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로 SDG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이미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적 되어있으며, 국제적 차원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나아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함.
- **[고령화 이슈]** 정밀의학 뿐만 아니라 정밀 예방에까지 능동적 고령화의 개념으로 접근 가능함.
- 산업 혁명이 가져온 기술이라는 선물은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하며 긍정적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함
- **[기타: 연구소의 파일럿 프로젝트]** 이탈리아 국립 보건연구소는 '여성 폭력의 단기적 영향'을 주제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의 ¼이 폭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했음. 폭력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으나 장기추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여성 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함

발표3. 4차 산업혁명과 노인인권
(라비아 자베리 아그하, 파키스탄 인권부)

- **[파키스탄의 노인인권]** 파키스탄의 60세 이상 인구는 현재 약 1400만명이며, 2050년에는 4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파키스탄 헌법에서 노인인권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등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연방정부 내 약 2000명의 공무원들이 노인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인권부에서는 파키스탄

노령인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정량적 연구법을 활용하고 있음. 현재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현상을 정책, 법안 등에 반영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연구를 통해 농어촌 지역 남성 노인들의 깊은 가부장적 성향을 확인하고, 새로운 논의 주제로 여성의 역할 변화가 언급되고 있음. 파키스탄의 노인 세대는 여성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된 변화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파키스탄의 4차 산업혁명]**

- **[변화의 다각화 및 가속화]** 선형적인 변화를 일으킨 지난 산업혁명들과 달리 제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이뤄내고 있음. 기술, 디지털 세계, 생물학적 영역 등 모든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빠르게 변화가 발생함.
- **[노인과 여성]** 변화는 노인 및 여성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침.
- **[노동시장 내 불평등 가시화]** 저숙련 및 고숙련 근로자 간의 격차 증가하고, 이는 노동시장의 와해로 연결될 것임. 특히 연령에 따른 불평등과 지적 자본으로 인한 불평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적 접근성]** 파키스탄 내 이동통신망 보급률은 43%로, 일부 시민들의 사회적 격리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일자리 접근성 약화와 상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고 지역 공동체에서의 입지 약화가 발생할 수 있음.
- **[온라인 의료서비스]** 농어촌 거주자에게 e-medicine을 제공하고 있음. 의료서비스 혜택 증가로 노령 인구의 40%는 식량문제를 경험하게 될 전망이며, 식품 관련 물류 인프라 구축 필요함.
- **[가족구조 변화]** 빠른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일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세대간 연계가 약화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함.
-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로 (전체 노동자의 73%) 관련 사회정책 개선 필요

■ **[정부의 역할 및 활동]**

- **[고용 기회 확대]** 고령인구의 고용 확대를 위해 1) 노인 기금을 조성하고, 2) 법적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3년 연장했으며, 3)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소액 대출 프로그램(Ehsaas Program)을 도입함.
- **[원격 의료서비스]** 14만명에 달하는 원격지 의료지원팀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Help-line을 통해 연 40만 건 정도의 상담을 제공함.
- **[그 외]** 건강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며, 노인을 위한 주거를 제공하고, 민원 제기를 위한 포털도 운영하고 있음. 또한 노령층에게 필요한 정책 지원을 위해 노인을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 **[향후 과제]** 기술의 발전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과 동시에 다양한 도전과제

를 직면하게 됨. 젊은 세대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공동의 목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발표4. 4차 산업혁명과 노인인권

(지안빙 리우, 북경 과학기술 연구소 (SE- SHSS Lab))

- 지난 10년간 ICT 기반의 홈케어 프로그램 주관해 왔음. 내년에는 북경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기술의 발전을 서비스로 연결하고자 노력중임.
- **[중국의 고령화 이슈]** 중국은 빠른 속도의 고령화 경험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노인과 인민 등 특수 계급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달 인권백서를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음.
- **[90-7-3 시스템]** 지역사회와 가정을 기반으로 한 노인 돌봄 시스템 '90-7-3 시스템'을 도입함. 본 시스템의 명칭은 전체 돌봄 서비스 중 가정 내 돌봄이 90%, 사회의 돌봄이 7%, 요양원에서의 돌봄이 3%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함.
- **[새로운 모델의 서비스 제공]** 기술발전은 새로운 모델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함.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1차 산업혁명으로 자동화가 가능해지면서 전동 휠체어가 발명되었고, 데이터 서비스, AI 등을 통해 중국 내 플랫폼의 변화가 일어남. 이 외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었음. 나아가 노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고 제공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 **[Smart Health Ageing]** WHO가 능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유사하게 중국은 Smart Health Ageing을 추진하고 있음.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Home Care Ecosystem]** ICT 센서 장비를 이용해 노인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적용에 핵심적 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장벽이 없는 케어 홈']**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가정에 편입하는 활동임. 노인요양서비스의 혁신적 모델로 평가되며 약 1500만 유로의 연구비가 투입됨. 식사, 목욕 등은 노인의 가정에서, 그 외 서비스는 커뮤니티 데이케어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가족 구성원들의 노인 돌봄에 참여하는 서비스 모델임. 또한, ICT 기술을 이용하여 가정과 센터 간 데이터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서비스는 케어매니저의 평가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한 후 제공됨.
- **[북경 과학기술 연구소의 역할]** 북경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5%로 약 150만명임. 북경시 정부 정책들은 북경 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하여 living lab을 통해 구현되고 있음. 연구진행을 위해 커뮤니티 센터 2개소에 현재 개발된 기술과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환기에 도달한 상황임. 신기술 시험 후 실제적 적용을 위한 시나리오 'Application Scenario' 발표하고, ICT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할 예정임.

발표5. 4차 산업혁명과 노인의 권리

(스리니바스 타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 UNESCAP은 정부 간 분석, 국가 간 기술협력, 사회 환경적 이슈를 검토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영역으로는 휴대폰, IoT, 위치 감지 등의 기술을 포함하며, 인간-기계간 상호작용, 인증 등을 활용함.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측면들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아시아·태평양 지역]**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개인과 공공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변화의 예로는 사라지는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및 원격 근무가 가능한 환경 등이 있음. 이 외에도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불평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 대비 매우 빠른 사회경제적 전환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인구구성학적 변화]**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의 인구구성학적 변화를 보임. 한국의 출산율은 4명에서 1명 이하로 감소하고,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5.6%에서 23.2%로 증가함. 이는 스페인과 매우 대조적인 수치임. 스페인의 경우 출산율이 2.9명에서 1.3으로 감소,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에서 26.3%로 증가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령화 이슈]**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노년 인구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소득안정성, 연금, 재정적 문제등이 예상됨.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슈를 고려해야 함:
 - **[노동인구 고령화]** 한국, 베트남 등 5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유지에 영향을 미침. 노동인구 노령화에 대해서는 추후 정책 입안시 고려되어야 함.
 - **[연금 관련 보호장치 마련]** 해당 지역은 연금 가입자 수가 낮고, 젊은 층으로부터 연금 각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이에 연금 관련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함
 - **[퇴직 후 소득안정성]**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지역 내 노인은 퇴직 이후 19~30년을 살아가게 됨. 이에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많은 노인들은 소득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 WHO 데이터(2016년)에 따르면 보편적 의료서비스, 의료보장제도가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이며, e-헬스 또한 중요 과제로 언급됨.
- **[4차 산업혁명 속 노인인권 고려사항]** 노인이 산업혁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며, 노인이 경험할 4차 산업혁명의 위험요소를 완화해야 함. 또한 고령화 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사전준비 및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이 외에도 일자리의 유연화, 사람들의 참여, 사람 간 상호작용과 사회적 격리 예방 활동이 고려되어야 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비정규직 이슈]**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0~60%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임.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는

데 실패함(중국, 한국의 사례 참고 필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연금보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선택권 보장이거나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노령 근로자에 맞추어 생산구조, 제조시설 등을 개선할 필요도 있음.

- **[그 외: 노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노력 필요]** 노인은 하나의 단일 집단이 아님을 인지해야 함. 연령별, 국가별, 지역별로 노인은 다른 성격을 나타내며, 노인 개개인이 경험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나아가 노인 세대 내 불평등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발표6. 노인인권을 위한 신기술의 시사점
(폐기 희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OHCHR))

- **[4차 산업혁명과 노인인권]**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기회와 도전과제가 공존함. 노인인권에 대한 기회 및 도전 과제로는 1) 보조 기술 사용을 통한 노인 생활의 긍정적 변화, 2) 보다 안전한 환경 구축, 3) 노인의 사회참여도 증가, 4) 노인의 독립적 생활, 5) 정보 남용으로 인한 노인의 사생활 침해 및 6) 보조기술, 로봇틱스 기술 사용으로 노인의 존엄성 침해 등이 있음. 특히, 디지털 기술의 활용능력에 따라 소외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령차별과 연령주의를 주요 문제로 다루어야 함
- **[인권 중심적인 접근법]** 디지털 세계에서 인권 중심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기술활용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용되는 인권 중심적 기준이 필요하며, 인권기반의 접근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적용되어야 함. (예: 인간계놈 연구 중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따를 수 있는 기준이 필요) 인권 중심적 접근법에 대해 다음의 5가지 사항을 고려해야함:
 - **[연령차별 문제는 인권문제]** 노인 학대 및 폭력을 인권문제로 인지해야 함. 파키스탄의 사례처럼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법제도 내 연령차별 및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을 타파해야 함. 또한, 기업 마케팅 속 연령차별 이슈 제거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노인의 참여]** 신기술 개발 및 활용에 대해 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기술 설계는 노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노인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도(인지적, 신체적 도움 등)를 고려해야 함.
 - **[평등한 기술 활용]** 노인이 평등한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함. 디지털 도구를 통해 노인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과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수반되어야 함.
 - **[책임성]** 노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정보 남용은 위반행위로 처벌되어야 함. 또한, 피해자 구제 방법을 마련하고, AI 전담 감시 기구 등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민간부분 역할 고려]** 현재 정부의 역할, 우리의 인식, 기업의 역할 간 간극이 존재

함. 민간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인권 관련 규칙을 정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일관된 접근법을 통해 기업의 신기술 개발 등의 활동이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세션 4> 세대 간 통합방안

발표1. 세대 간 통합방안

(하이드런 몰렌코프, 에이지플랫폼 유럽 (AGE Platform Europe))

- **[에이지플랫폼 유럽]** 에이지플랫폼은 노인을 위한 기구로, 유럽 내 2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령화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노령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1) 노령층이 사회적 부담이라는 인식, 2)노령층이 젊은층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인식, 3)노령층이 생산성이 낮고 의존적이라는 인식, 4)노령층이 사회의 위협이라는 인식이 있음.
- **[세대 간 연대]** 세대 간 연대는 다양한 세대 간의 사회 결속력을 의미하며, 디지털화가 진행된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임. 현재 가족구조 변화, 개인화 진행, 이동성 증가로 세대 간 연대 약화되고 있음. 하지만 연대는 모든 세대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 세대 간 연대는 사회 결속의 전제 조건이며, 공공 복지의 근간, 비공식 돌봄 체계의 근간임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특히, 모든 세대가 공동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 **[연령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제도적 관행은 만연함 (예: 대출, 렌탈, 교육 등에 나이제한 존재). 정치 과정에서 연령 자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함
- 세대 통합을 위해 고려해야할 이슈는 아래와 같음:
 - **[성 평등]** 성은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성역할의 영향으로 성차별주의가 발생함. 청소년시기에 경험하는 차별이 노년까지 이어지기도 하며, 성별 임금격차는 연금격차로 연결됨.
 - **[빈곤]** 빈곤은 자율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함. 지속적이고 연속적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아이들과 젊은 세대의 성공 기회를 감소시킴. 장기적 실업상태에 놓이면 노년 빈곤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향도 있음. 이에, 모든 상황의 빈곤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것이 목표임.
 - **[디지털화]** 디지털 기술은 모든 세대에게 새롭고 다양한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음. 동등한 접근성, 저작권 보장, 네트워크 중립성 보장 및 데이터 보호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 특히 직장 내 디지털화는 노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실직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함. 다만, 디지털화는 노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개개인의 능력을

개선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노인 세대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요양과 의료]** 기술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나 사회적 외로움과 소외감도 야기함. 돌봄서비스는 젊은 세대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함. 이에 참여자들의 한계를 고려하여 요양과 의료 분야 내 트레이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세대 간 연대의 희망]** 인간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며, 다양한 갈등 문제가 세대 간의 문제로 귀결되어서는 안됨. 또한, 한 세대를 희생시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야 함. 연령 그 자체는 한 사람의 능력을 대변할 수 없으므로 포용적인 노동시장이 조성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이로운 장기요양 서비스를 마련해야 함. 나아가 디지털로 인한 소외 타파를 위해 노력해야함. 모든 세대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발표2. 세대 간 통합방안 (사칸 분낙, 태국 보건부)

- **[태국의 인구구성학적 변화]** 태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20년전 삼각형 모양에서 현재 역삼각형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 30년 간 지속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이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향후 독거노인, 배우자와만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수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의 우울증]** 소외되어 생활하는 노인들의 자살률 증가하고 있어 중요 지표로 추적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독거노인임. 하지만 노인 자살율은 전혀 감소하지 않은 상태임.
- **[Kom-Krarb-Korb (목레-절-허그) 캠페인]** 태국 인간개발부에서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복종-존중-사랑의 의미로 목레와 절, 허그를 진행하고 있음. 노인들이 가정에서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자 기획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 **[‘AAA’ 협회]**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세대간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임. 각 지역사회를 순회하며 3 세대 구성원들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국가 차원의 노력]** 태국 정부는 고령화 의제 채택 및 ‘세대 간 통합’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지역사회 내 플랫폼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세대의 구성원들이 조화로운 생활 양식 및 주거지 형태를 모색하고 있음.
- **[노인을 위한 주택개발]**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로, 여러 세대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관련하여 1) 다세대 구성원이 생활 가능한 주택 설계와 2) 모든 세대가 만족하는 디자인과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설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 **[커뮤니티 센터]** 세대 간 통합을 위해 지역사회 내 1000여개의 커뮤니티 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음. 인간개발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노인을 위한 주간 보호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노인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클럽활동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편리성 개선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개 도시에서 교통개선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디지털화와 SNS 사용 양상]** 젊은 세대에게 디지털화와 SNS는 관계 형성의 주요 수단이며, 사람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감소하는 추세임. 반면 노인 세대에게는 하나의 교류 방법에 불과함. 따라서 젊은 세대에게는 SNS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노인세대에게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함.
- **[ACAI]** 태국에 설치된 기구로, 노인의 사회, 보건, 경제, 환경적 측면을 다룰 예정임. 지난 8월 준비회의를 개최했고,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모여 노인 관련 현황, 연령주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논의했음. 논의된 내용을 ASEM 측에 전달하여 향후 관련 이슈를 논의할 예정임.

발표3. 캄보디아의 국가 고령화 정책 2017-2030 (노인 학대와 폭력을 중심으로)
(쿤 체아신, 캄보디아 사회부)

- **[캄보디아의 고령화 개요]** 2019년 기준, 캄보디아의 전체 인구는 1530만명이고, 2030년에는 18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노인인구는 2015년 기준 120만명에서 2030년 200만명에 도달할 예정이며, 전체 인구의 8.3%에서 11%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캄보디아 전체 노인인구의 60%가 여성이며, 기대수명의 경우 남성은 67세, 여성은 71세로 예측됨(2013년 기준).
- **[국가 고령화 정책 (NAP)]**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을 수용하고, 실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 2003년에 발표한 노인을 위한 정책은 국가개발의 혜택을 누리고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 및 접근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국가정책 2017-2030 도입]** 인구구성학적, 경제학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 정책 2017-2030을 도입함. 지역별 아젠다(아시아-태평양 마카오 고령화 행동계획, 상하이 이행전략, 고령화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문)를 반영하고 있음. 본 정책의 비전은 '노인을 위한 동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목표로 1) 노인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유롭게 지역공동체 및 경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2)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의 건강한 고령화 보장이 있음.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 재정안전성, 2) 건강, 3) 주거, 4) 주변여건 개선, 5) 능동적 고령화와 노인자조모임(OPA), 6) 세대 간 연대, 7) 노인학대와 폭력 퇴치, 8) 응급상황 대처, 9) 젊은 세대의 고령화 대비
- **[노인에 대한 학대와 폭력]** 가족지원, 재무지원, 장기요양, 의료, 주거 혜택 등의 결여가

노인에 대한 학대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함. 하지만 캄보디아는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중요시하는 나라로, 노인에 대한 폭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노인학대는 언어적, 물리적 학대를 모두 포함함. 캄보디아는 노인에 대한 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 이슈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의 범죄 노출 증가가 있음.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활동]**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국가 고령화 정책 우선순위로 반영하고 있음. 이를 위해, 규제 마련, 관련사건 접수 장려, 지역공동체와의 주요 보고서 공유, 의료진 대상 노인학대 관련 사건 공유 권고, 예방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의식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 고령화 정책]** 유공자 및 청년 재활성 사회부에서는(Ministry of Social Affairs, Veteran and Youth Rehabilitation) 캄보디아 국가 노인위원회를(CNCE) 통해 정책 이행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5개 부처와 기관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 및 국가기구들과 협력하여 지역차원의 정책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 계획]** 캄보디아 정부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 이를 위해 다음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1) NAP의 단계별 실행, 2) 국가차원에서 NAP 실행 조율 강화, 3) 노인자조모임(OPA) 역할 강화 및 책임성 강화, 4)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제정, 5) 의료서비스 접근성, 재정 안정성, 연령차별 금지 등을 위한 법안 마련, 6) 헬프에이지 캄보디아, 자이카, 코이카 등과 협업하여 네트워크 구축

발표4. 세대 간 통합방안: 인구 고령화에 대한 생애주기 접근법
(린타로 모리, 유엔인구기금(UNFPA))

- 고령화는 하나의 과정을 의미하며, 인구의 고령화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임. 노인을 연령으로 구분하고 규정짓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제도와 인식을 통해 연령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야함.
- **[건강한 고령화]** 건강한 고령화를 추구하기 위해 건강한 기대수명과 기대수명 간의 격차를 살펴봐야 함. 건강한 기대수명이란 장애, 이동성에 문제가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기대수명 뿐만 아닌 건강한 기대수명 연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필요요건으로 1)건강한 행동과 2) 인간관계 형성이 있음. 습관과 행동 패턴은 전 생애에 걸쳐 고착되므로, 인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건강한 행동이 촉진되어야 노년기 건강한 행동을 유지할 수 있음. 또한, 인간관계는 건강과 행복의 질을 좌우하므로(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 사람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이 외에도 다양한 정책과 전 생애에 걸친 올바른 선택이 중요한 요소임.
- **[유엔인구기금의 접근법]** 유엔인구기금이 추진하는 다섯 가지 접근법은 1) 긍정적인 노화, 2) 정확한 데이터, 3) 인권, 4) 조정(coordination) 및 5) 생애주기 접근임.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이 중요함. 유엔인구기금은 개인가치를 존중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추구하고 있음. 특히, 전 세대에 걸친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을 연속적

인 과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함.

발표5. 세대 간 통합방안

(권윤택,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AGAC))

- **[AGAC 소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GAC)는 국제전문기구로 노인인권분야에 집중해서 활동하고 있음. 2018년 6월, 노인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됨.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권 강화 및 아셈 파트너 국가들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허브로서 정책 연구, 국제협력, 인식증진, 교육 등을 제공함. AGAC의 세대 간 연대활동으로는 1) 국제 콘퍼런스 참여 (제주포럼 5월 세션 등), 2) 노인혐오표현 및 차별 관련 연구 진행, 3) 국내외 캠페인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음.
- **[노인혐오표현 연구]** 세대간 통합을 위해 한국 내 세대갈등 이슈를 연구하고 있음. 한국은 고령화 문제가 악화되면서 노인문제가 부상하고 있으며, 세대 간 갈등은 사회의 핵심 문제임. 젊은 세대는 온라인 상에서 노령층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표현하고 있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의 젊은 세대가 세대 간 갈등이 존재하며 노인 세대와 소통이 어렵다고 응답함. 또한, 노인 세대는 44%가 세대 간 갈등이 존재하며 40%가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함.
 - **[노인혐오표현 신조어]** 본 연구에서 확인한 노인혐오표현으로는 온라인 상에서 활용되는 신조어임. 주요 신조어로는 다음의 세 단어가 있음: 1) 틀딱충: 틀니와 벌레를 합쳐놓은 말로 틀니는 노인을 의미함. 한국에서 벌레는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함, 2) 연금충: 연금과 벌레를 합쳐놓은 말로 노령층에 대한 재무적 부담을 나타내는 비하언어임, 3) 할매미: 노인의 큰 목소리를 비하하는 단어
 - **[노인혐오표현의 원인]** 세대 갈등을 나타내는 노인혐오표현의 원인으로 젊은 세대의 노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론의 노인 비하 및 왜곡된 이미지 형성을 들 수 있음.
 - **[시사점]**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 및 고령화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확인함. 또한 인식 증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확인하게 됨.

발표6. 세대 간 통합방안

(양커우 양루사이,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과장)

- **[라오스 개요]** 라오스의 전체인구는 약 700만명이며, 전체 인구의 33%는 도시 지역, 나머지 67%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라오스의 노동인구는 약 470만명이고, 이 중 42%는 공식 경제 부문, 48%는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근무함. 경제 발전을 통해 라오스의 GDP는 크게 향상되었으나 성장이 일부 경제 부문(전기에너지, 광산업 등)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임.

- **[고령화 현황]**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6.5%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임. 60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10%이상, 2050년 17.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라오스는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국가 내 고령화 문제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임.
- **[국가정책]** 노인에 대한 국가 정책은 다음과 같음:
 - **[노인정책(2002)]** 노인의 건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건 및 의료서비스 등에서 민간과 공공부문이 협력하여 지원할 것을 권고함. 노인의 인권 보호와 노후 소득보장에 대해 다루며, 노인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 축적의 필요성을 다룸.
 - **[사회보장 전략(2019)]**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2030년까지 모든 라오스 국민들이 사회보장 서비스 및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함.
- **[의료보건 시스템]** 라오스는 가정 내에서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건강상태를 돌보는 것이 전통적인 문화임. 이에 빈곤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노인에게 충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